

麗末 鮮初 귀화인들의 시조 창작 양상과 그 의미

조지형*

차 례

1. 머리말
2. 심양 출신 무장 邊安烈의 <不屈歌>
3. 위구르 출신 문신 僕長壽의 <愼言歌>
4. 여진 출신 귀화 왕족 李之蘭의 <逐鹿歌>
5. 맺음말

| 국문초록 |

본고는 여말 선초 귀화인들의 시조 창작 양상을 살펴보았다. 여말 선초는 시조의 형성기로서 역사 전환기의 주체였던 신홍사대부들이 그 담당층이었다. 이 같은 국면에서 귀화인들 역시 시조를 창작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 및 지향을 시조를 통해 드러내었다. 우리말에 서툰 수밖에 없던 귀화인들이 우리 고유의 노래 형식인 시조를 창작하였다는 것은 매우 특기할 만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중국 심양 출신으로 공민왕을 호종하며 귀화한 변안열은 역성혁명의 기로에서 <불굴가>를 지어 무장으로서의 굳건한 충절을 드러내었다. 위구르 출신으로 홍건적의 난을 피해 고려로 귀화한 설장수는 대명외교를 전담하는 사신으로 활약하며 정치적 부침 속에서 <신언가>를 지어 언행 처신에 조심할 것을 경계하였다. 여진 출신으로 이성계와 의형제를 맺고 왕족의 반열에까지 오른 이지란은 조선 건국 후 왕자의 난이 지속되는 국면에서 왕위의 향방과 조선의 운명에 대한 염려 섞인 걱정을 <축록가>를 통해 드러내었다.

이처럼 여말 선초에 귀화인을 포함하여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의 인물들이 한시와 더불어 시조를 창작하였다는 점은 여말 선초 사대부들의 문학장 안에서 시조가 중요한 문학적 행위의 일환으로 인식되었으며 작가로서 일종의 금지를 가질 만한 성격의 것이었다고 할 수 있

*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다. 아울러 시조 창작의 개방성은 이미 형성기부터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핵심어 : 귀화인, 귀화인 문학, 여말 선초 시조, 邊安烈, 倭長壽, 李之蘭.

1. 머리말

본고는 여말 선초 ‘귀화인’들의 시조 창작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귀화인 작가들이 문학사에서 상대적으로 낮설기 때문에, 작가들의 생애 주요 국면과 활동 양상을 검토하여 작품 창작의 맥락과 동기를 추적해보고 작품의 주제적 지향을 파악하는 데까지 나아가고자 한다. 아울러 여말 선초 문학장(文學場) 안에서 이들의 시조 창작 행위가 지니는 시가사적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시조는 고려 말 형성기를 거쳐 조선시대에 들어와 그 담당층이 위로는 왕공석사(王公碩士)부터 아래로는 평천민들에 이르기까지, 또한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지역적으로는 전국에 걸쳐 창작 향유된 국문시가의 대표적인 갈래라 할 수 있다. 특별히 본고에서 주목하는 현상은 해외에서 고려 및 조선으로 귀화하여 정착한 외국인들이 우리말 노래인 시조의 창작에 참여한 사실이다. 귀화인들의 출신 지역은 중국, 위구르, 여진 등 다양하다.

기실 출신 지역이 어떠하든지 간에 귀화인들이 동아시아 중세 보편언어인 한자-한문을 통해 지식인들의 필수 교양이었던 ‘한시(漢詩)’를 창작하였다면, 이는 이채로울 것이 없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시조의 형성기라 할 수 있는 ‘여말 선초’의 이른 시기부터, 더욱이 우리말에 서툰 수밖에 없는 귀화인들이 우리말 노래인 ‘시조’를 창작하였다는 사실은 그리 간단히 지나칠 수 없는 현상이다. 뿐만 아니라 시조를 창작한 귀화인들은 단순한 국내 유입-귀화-정착 사례가 아니라, 뛰어난 문재(文才)·무재(武才)를 바탕으로 국내 정치 무대에 출사하여 권력의 최고위층까지 올라 두드러진 활약을 펼치면서 여말 선초의 왕조 교체 과정에서 역사적 변혁

을 이끈 핵심 인물들이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요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 민족을 단일민족이라 인식하고 있지만, 과거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외국인이었다가 한반도 지역으로 귀화한 인물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삼국시대 한반도로의 이주 또는 귀화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¹⁾ 특히 고려시대에는 건국 초기부터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목적에서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을 받아들여 활용하였다. 고려 후기에는 동아시아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화 국면 속에서 고려로 유입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역사상 유례없이 많은 또 출신 지역도 다양한 귀화의 사례가 존재했다.²⁾ 이러한 귀화인들 가운데는 문학사에 그 이름이 오를 만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인물들도 여럿이 발견된다. 하지만 귀화인 문학 연구는 그간 국문학 연구사에서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해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바 없으며, 그 실상조차 제대로 파악이 되어 있지 않다.³⁾

귀화인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정착하여 활동하면서 대체로 동아시아의 중세 보편언어였던 한문을 바탕으로 시문과 산문을 남기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문을 활용해서 시조·가사 등을 창작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귀화인들이 남긴 국문학 유산도 한국문학의 범주에 포괄하여 논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새로운 작가층인 귀화인들에 주목하고 그들에 의해 산출된 작품을 분석하는 등 작가와 작품세계의 실질을 탐색함으로써 문학사의 지평도를 확장하고 그간 우리 문학사에서

1) 이춘양·조지형, 「고대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 사례 및 유형 -『삼국사기』·『삼국유사』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5,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9, 743~756쪽.

2) 박옥걸, 「고려시대 귀화인의 역할과 영향」, 『백산학보』 70, 백산학회, 2004. ; 이미지, 「고려 전기 異國人 入境의 유형과 실상—來獻·來朝·來投·來附를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43, 한국중세사학회, 2015. ; 배숙희, 「13~14세기 歸化人의 유형과 고려로 이주」, 『역사학보』 233, 역사학회, 2017. ; 한정수, 「고려 전기 異邦人·歸化人의 입국과 해동천하」, 『한국중세사연구』 50, 한국중세사학회, 2017.

3) 조동일의 『한국문학통사』에서도 귀화인 문학에 대한 서술은 몇몇 인물에 대한 매우 간략한 소개 정도로만 이루어져 있다. 서술 부분 말미에 조동일은 귀화인 문학에 대한 총괄적인 연구가 없어 아쉽다는 소회를 밝히고 있기도 하다.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제4판), 지식산업사, 2005, 239~242쪽.

소외되어 있던 ‘귀화인 문학’ 연구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한국 사회가 다문화 시대로 접어든 지금, 이제 문학사에서도 귀화인 문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되는바, 그 일환으로 귀화인들이 남긴 시조에 주목을 하고자 한다.

한문문학이든 국문문학이든 귀화인들의 작품들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본고에서는 우선 귀화인 작가의 삶을 추적하여 시조 창작의 동기와 맥락을 살피며 작품의 주제적 경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말 선조 문학 장 안에서 귀화인들의 시조 창작 행위가 지니는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귀화인들의 시조 창작은 대체로 여말 선조의 특수한 정치적 국면에서 산출된바, 이 같은 귀화인 시조에 대한 탐색은 문학사의 특수 현상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 심양 출신 무장 邊安烈의 <不屈歌>

변안열(邊安烈, 1334~1390)의 자는 충가(忠可), 호는 대은(大隱)으로 중국 심양 출신이다. 그는 황주변씨 8대손으로, 이후 원주변씨의 시조가 된 인물이다. 우리나라 변씨는 본래 나말 여초에 중국으로부터 유래하여 황해도 장연·황주 일대에 세거하였다. 참고로 <보현십원가(普賢十願歌)>를 지은 균여(均如, 923~973)가 우리나라 변씨의 초기 인물 가운데 하나이다.

변안열의 세계가 되는 황주변씨의 시조 변려(邊呂, ?~1279)는 중국 농서(隴西) 출신으로 송나라 멸망 후 고려로 귀화하여 황주에 정착하여 살다가, 1232년 몽고군이 개경을 침입하였을 때 강화(江華)로 피난간 고종(高宗)을 시종하는 데 공을 세워 상장군에 임명되고 태천백(泰川伯)에 봉해졌다.⁴⁾ 변려의 후손들은 한동안 고려에서 관직생활을 하며 살았는데, 몽고와의 강화가 이루어지

4) 『黃州邊氏世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청구기호 古2518-31-8-1), 70쪽.

고 부마국(駙馬國)의 지위를 유지하던 고려 후기에 이르러 변안열의 조부 변순(邊順)과 그의 형 변석(邊碩)이 원나라 사신 독타불화(篤朶不花, ?~1376)⁵⁾를 따라 원나라에 들어가서 세조(世祖, 쿠빌라이)를 알현하고 심양(瀋陽) 천호후(千戶侯) 봉해져 다시 심양으로 이주했다. 이후 변안열의 가문은 심양을 근거지로 심양후의 봉작을 세습하면서 상당한 권력을 형성해 나갔다.⁶⁾

이러한 가문의 내력 속에서 변안열은 1334년 심양 사저에서 출생하였는데, 어린 시절부터 문장에도 능하고 무예에도 뛰어났다. 그는 15~16세 때 독타불화를 사사(師事)하고, 1351년(충정왕 3) 18세의 나이로 원나라에서 무과로 장원급제를 하며 일약 형부상서에 초수(超授)되었다. 그리고는 그해 12월 공민왕(恭愍王)이 노국공주(魯國公主)에게 장가를 들어 고려로 돌아오게 되자, 변안열은 숙위 업무를 맡아 함께 고려로 들어왔다. 기실 변안열은 심양에서 3대를 살았던 가문의 경력과 기반으로, 고려로 오기 전부터 이미 공민왕의 최측근 세력이었다. 고려로 들어온 변안열은 공민왕의 주선으로 원주원씨 원의(元顥)의 딸과 혼인을 하면서 원주를 본관으로 삼아 원주변씨의 시조가 되었다. 이처럼 중국과 고려를 넘나든 선대의 행적과 본인의 이력에서도 정작 변안열 자신은 ‘중국’ 출신이라는 자아 정체성을 굳게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⁷⁾

변안열은 고려로 들어와 10여 년 동안 줄곧 숙위 업무에 종사하다가, 여러 차례 흥건적과 왜구를 물리치며 공훈을 인정받아 권력의 최상층부로 진입을 했다. 특히 그는 공민왕의 개혁정치에 부응하고자, 친원파에서 친명파로 정치적 노선을 갈아타기까지 했다. 무장으로서의 공적은 계속 쌓여 1374년에는 최

5) 독타불화는 원 세조 쿠빌라이의 직계 후손으로, 충렬왕 비 계국대장공주, 충선왕의 비 계국대장공주와도 혈맥으로 이어진다. 그는 심양왕으로 봉해진 왕고(王鬲)의 손자인데, 왕고는 충렬왕의 손자이자 충선왕의 조카였다. 그는 쿠빌라이 당시에 일본 정벌을 준비하기 위해 고려로 왔다.

6) 이성무, 『변안열의 생애와 평가』, 『대은 변안열의 생애와 업적』, 지식산업사, 2013, 18~27쪽.; 이성무, 『변안열 평전』, 글항아리, 2015, 77~84쪽.

7) 변안열이 지은 한시 <동국유거음(東國留居吟)>에서 “나는 중국인으로 軒轅에서 나왔으니, 제왕의 世乘에 실려 밝게 전해 오도다.[粵余華姓自軒轅, 昭載帝王世乘傳.]”라고 하며 본인의 系出을 읊은 바 있다.

영(崔瑩) 휘하의 부원수로 제주 목호(牧胡)를 토벌하는가 하면, 1380년에는 이성계 휘하의 부원수로 지리산 일대에서 펼쳐진 황산대첩(荒山大捷)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판삼사사(判三司事)에 올랐으며, 아울러 이성계의 위화도회군에 적극 가담하면서 회군공신에도 책록되는 등 여말 군부의 최고 실세 중 한 사람으로 군림하게 되었다.

하지만 우왕(禡王)을 폐위시키고 창왕(昌王)을 옹립하는 과정에서 변안열은 이색(李穡)과 뜻을 같이하면서 이성계 일파와 정치적인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하여, 조준(趙浚)이 전제개혁(田制改革)을 들고나오자 이를 전면적으로 반대하며 맞섰다.⁸⁾ 변안열이 왜구 토벌과 위화도회군 등등의 과정에서 본의까지는 어떠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행동은 이성계와 궤를 같이 하였다. 하지만 창왕의 옹립과 전제개혁을 두고는 이성계와 정치적 노선을 확실히 달리하였다. 당시 군부에서 공훈과 명망으로 견주어 이성계에 맞설 만한 인물은 변안열이 유일하였다. 더욱이 이색을 정점으로 하여 정몽주-변안열 등이 함께 당여(黨與)를 형성한 상황에서, 이성계 일파에서는 자신들의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문신과 무신의 대표주자 격인 정몽주와 변안열을 반드시 제거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상대의 의중을 떠보고 각자의 정치적 입장을 피력하는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이방원의 <하여가(何如歌)>, 정몽주의 <단심가(丹心歌)>, 변안열의 <불굴가(不屈歌)>이다. 각자 의도한 정치적 메시지를 ‘한시’가 아닌 우리말 노래 형식을 통해 표현했다는 점에 주목을 요한다. 고려 말 치열한 정치 투쟁의 맥락에서 여러 사람이 모인 연회 석상에서 시조를 주고받았다는 점은 당시 우리말 노래가 지닌 효용성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고려 조정을 장차 혁파하려 할 적에 太宗이 제상들을 맞이하여 술잔을 기울이며 스스로 노래를 불러 諸公의 뜻을 시험하였다. 그 노래는 다음과 같다.

8) 『高麗史節要』卷34, 「恭讓王 己巳元年」. 都察院議使司議田制, …… 我太祖與大司憲趙浚, 欲革私田, 李穡以爲不可輕改舊法, 持其議不從, 而李琳·禹玄寶·邊安烈, 皆不欲革, 以穡爲儒宗, 藉其口, 以惑衆聽, 革復之論未決.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此亦何如, 彼亦何如.
성황당 뒷담장이 무너진들 어떠하리	城隍堂後垣, 頽落亦何如.
우리도 이같이 하여 죽지 않음 어떠리	我輩若此爲, 不死亦何如.

그러자 포은 정몽주 선생이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此身死了死了, 一百番更死了,
백골이 진토 되어 혼백이 있든 없든	白骨爲塵土, 魂魄有也無,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고칠 리가 있으리	向主一片丹心, 寧有改理也歟.

(변안열) 선생이 이 노래를 이어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내 가슴에 말[斗]만한 구멍 뚫고	穴吾之胸洞如斗,
길고 긴 새끼줄 꿰어	貫以藁索長又長,
앞뒤로 끌고 당겨 갈고 쓸지라도	前牽後引磨且戛,
네가 하는 대로 내 마다치 않으리	任汝之爲吾不辭,
내 임금 빼앗고자 한다면	有欲奪吾主,
이런 일엔 내 굽히지 않으리	此事吾不屈.

○ 두 선생의 뜻은 참으로 日月과 더불어 빛을 다룰 만하였다. 포은 선생의 노래는 매우 정성스럽고 간절하며 대은 선생의 노래는 간결하고 의연하여 명확히 흔들 수 없고 늠연히 범접할 수 없다. 세상에 전하기를, 두 선생이 입은 화는 이 노래를 부른 날로부터 싹트기 시작하였다고 한다.⁹⁾

위 기록은 변안열의 후손이 편찬한 『대은선생실기(大隱先生實紀)』의 내용

9) 『大隱先生實紀』 卷1 「不屈歌」. 時麗將革, 太宗遼宰執飲, 自爲歌, 試諸公意, 歌曰: 此亦何如, 彼亦何如. 城隍堂後垣, 頽落亦何如. 我輩若此爲, 不死亦何如. 鄭圃隱先生歌曰: 此身死了死了, 一百番更死了, 白骨爲塵土, 魂魄有也無, 向主一片丹心, 寧有改理也歟. 先生繼而有此歌: 穴吾之胸洞如斗, 貫以藁索長又長, 前牽後引磨且戛, 任汝之爲吾不辭, 有欲奪吾主, 此事吾不屈. ○二先生之志, 眞可與日月爭光, 而圃老之歌, 懇惻切至, 先生之歌, 直截剛毅, 確乎不可撓, 凜乎不可犯. 世傳, 二先生之禍, 萌於此歌之日云.

이다. 일찍이 이 내용은 황폐강에 의해 소개¹⁰⁾되어 ‘불굴가(不屈歌)’라 명명되고 조선 후기 사설시조의 원가(原歌)로 지목되었다. 하지만 이후 강진섭이 변안열의 작품이 아니라 반박¹¹⁾을 하고, 이동영¹²⁾·조규익¹³⁾ 등이 이에 대해 재반박을 하면서 작가 문제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다. 『대운선생실기』가 문중의 후손들에 의해 편찬되었지만, 『대운선생실기』에 부록(附錄)으로 수록된 동시대 문인들이 작성한 변안열의 제문(祭文)이나 행장(行狀)의 내용으로 본다면, 이제 작가 문제는 비교적 명확해진 듯하다. 이승인이 지은 제문에는 ‘씩어 없어지지 않을 것은 불굴의 노래이다.[所不朽者, 不屈之歌.]’라 하였고, 이성계의 아들이자 변안열의 사위였던 무안대군(撫安大君) 방번(芳蕃)이 지은 제문에는 ‘남겨 놓은 불굴의 노래가 송악에 가득 쌓여 있다.[不屈遺歌, 巖巖松岳.]’고 하였다. 정몽주가 입전한 「변안열전」, 길재가 쓴 「유사(遺事)」, 이색이 작성한 「행장(行狀)」에는 본문 중간에 각각 <불굴가>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

변안열의 <불굴가>는 위 기록에서의 경우처럼 <하여가>·<단심가>와 함께 논의될 때 작품 창작의 상황 맥락도 명확해지고 작가로서의 위상도 더욱 부각된다. 뿐만 아니라 작품 해석 및 주제적 층위도 마찬가지이다. <하여가>는 한역되어 전해지는 문헌에 따라 중장의 내용에서 차이가 드러나는데, ‘성황당 뒷담장’과 ‘만수산 드렁칫’ 계열로 나뉘어진다.¹⁴⁾ 그런데 이 <하여가>의 중장 내용에 따라 함께 연결되어 있는 <단심가>의 해석도 달라진다. 성황당

10) 황폐강, 「大隱 邊安烈과 不屈歌」, 『論文集』 2, 단국대학교, 1968, 53~87쪽.; 황폐강, 「大隱의 不屈歌 補攷: 補攷 國文原歌를 中心으로」, 『국어국문학』 49-50, 국어국문학회, 1970, 355~368쪽.

11) 강진섭, 「傳邊安烈의 <不屈歌> 贋作論」, 『어문연구』 12, 忠南大學校 文理科大學 語文研究會, 1983, 123~136쪽.

12) 이동영, 「不屈歌 贋作論의 辨正」, 『韓國文學論叢』 8:9, 한국문학회, 1986, 5~28쪽.

13) 조규익, 「<不屈歌> 補論」, 『東方學』 2,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1996, 83~106쪽.

14) 예컨대 ^A沈光世 『海東樂府』에는 ‘此亦何如, 彼亦何如, 城隍堂後垣, 頽落亦何如, 我輩若此爲, 不死亦何如’로 되어 있고, ^B洪萬宗 『旬五志』에는 ‘如此亦何如, 如彼亦何如, 萬壽山葛菓, 纏綿亦何如, 我輩亦何如, 此百年享如何’로 되어 있다.

뒷담장 계열로 전승된 <단심가>는 ‘충절가’로 해석되고, 만수산 드렁칫 계열로 전승된 <단심가>는 ‘연군가’로 해석된다. <하여가>의 존재가 무시되고 작가 표기 없이 독자적으로 전해지는 무명씨 계통의 <단심가>는 ‘연정가’로 해석된다.¹⁵⁾ 앞의 인용문에서 성황당 뒷담장 <하여가>와 연결된 <단심가>는 정몽주의 간절한 충심(衷心)을 드러내는 ‘懇惻切至’의 노래로, 아울러 <불굴가> 역시 변안열의 명확하고도 굳건한 ‘直截剛毅’의 뜻을 표현한 ‘충절가’로 해석되고 있다.

가슴에 궁글 등시러케 뿔고 윈숫기를 눈 길게 너스너스 쏘와
 그 궁게 그 숫 너코 두 놈이 두 곳 마조 자바 이리로 홀근 저리로 홀적 홀근홀
 적 홀 저기는 나남죽 늑대되 그는 아모뽀로나 건되려니와
 아마도 님 외오 살라 흐면 그는 그리 못흐리라¹⁶⁾

한편 위 사설시조는 <불굴가>의 후대 전승 형태로 언급되는 작품이다. 하나의 타입(type) 안에 여러 변이형을 포함하여 모두 29개의 문헌에 연관된 작품이 출현하는데, 작가 표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하여가>·<단심가>와 분리되어 전해질 뿐만 아니라, 작품의 상황 맥락에 대한 기록도 작가 표기도 없이 전해지면서 자연스레 남녀 사이에 이별을 거부하는 ‘연정가’로 해석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결국 <불굴가>는 본래 변안열이 고려 왕조와 군주에 대한 굳건한 충절을 노래한 작품이었지만, 시대가 흘러 유전(流傳)되면서 배경기사와 작가 정보를 상실하여 조선 후기 시정 문화 속에서 연정가로 변모하였다고 할 수 있다.

15) 정운채, 「〈丹心歌〉의 전승 계통에 따른 해석의 방향」, 백영 정병욱 선생 10주기 추모 논문집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 집문당, 1995, 447~458쪽.

16) 『古時調大典』(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00341. / 『청구영언』(진본) #549.

3. 위구르 출신 문신 俛長壽의 <愼言歌>

설장수(俛長壽, 1341~1399)의 자는 천민(天民), 호는 운재(芸齋)로, 그는 본래 위구르(Uighur,回鶻) 사람이었다. 그의 집안은 위구르 국상(國相)의 후예로 대대로 설련갈하(俛鞏傑河, 현 몽골의 色楞格河 Selenga)에서 세거한 명문 가문이었는 데, 원나라 때 중국으로 들어와 색목인(色目人) 출신의 관료로 활약하였다. 특히 그의 조부 설철독(俛哲篤)은 원나라 인종(仁宗) 연간에 이부상서를 지냈으며, 부친 설손(俛遜) 역시 순제(順帝) 연간에 문과에 급제하여 단본당 정자(端本堂正字)에 임명되어 황태자에게 경전을 교수하였다.¹⁷⁾ 이 시기에 고려 공민왕은 원나라 수도인 대도(大都, 현 북경)에 머물면서 단본당에서 황태자를 시종하고 있었던바, 이로 인하여 설손은 공민왕과 깊은 교유관계를 맺었다.

설장수가 고려로 들어오게 된 것은 당시 불안정한 동아시아 정세 때문이다. 1358년 설손은 부친상을 당하여 잠시 북경을 떠나 대령(大寧, 현 河北 平泉縣)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해 12월 홍건적(紅巾賊)의 난이 크게 일어나 임시 거처였던 대령까지 쳐들어오자, 설손은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온 가족을 거느리고 고려로 이주하였다. 당시 공민왕은 단본당 시절의 인연으로 인해 설손을 후대하여 그를 고창백(高昌伯)·부원후(富原侯)로 봉해주고 가택과 전답을 하사하였다. 하지만 설손은 귀화 후 1년 만에 42세의 이른 나이로 개경에서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런데 옆친 데 덩친 격으로 홍건적이 요동을 지나 고려까지 침입하여 1361년 수도 개경이 함락되면서, 설장수는 부친의 상중에 급히 피난길에 오르게 된다. 그는 1362년 부친의 상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특명에 힘입어 22살의 나이로 과거에 응시하여 급제하게 되었다. 이때 급제 동기가 이승인(李崇仁), 정도전(鄭道傳), 박의중(朴宜中) 등이었다.¹⁸⁾ 설장수는 귀화 이후에

17) 이상의 내용은 『慶州俛氏諸賢實記』(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 19~23면의 내용과 『高麗史』 「列傳」 <俛遜>의 내용을 정리함. *『高麗史』 卷112 「列傳」 俛遜, 初名百遼遜, 回鶻人, 以世居俛鞏河, 因以俛爲氏, 自高祖嶽璘帖穆爾, 歸于元, 世仕元, 父哲篤, 官至江西行省右丞, 遜順帝時, 中進士, 歷翰林應奉文字·宣政院斷事官, 選爲端本堂正字, 授皇太子經.

고려에서 실시하는 과거[문과]에 응시하여 당당히 급제함으로써 그의 문재(文才)를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의 급제 동기들이 여말 선조 역사 전환기의 핵심 인사들이었다는 점에서 교유관계, 관직생활, 문예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설장수는 과거 급제 이후 그는 자신과 동방(同榜)이자 이색(李穡)의 문인이었던 이승인·정도전·정몽주·하륜(河崙) 등 이른바 고려왕조의 개혁 소장파와 정치적 노선을 함께하였는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친명반원(親明反元)’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한편 설장수는 젊은 시절부터 외교 사신으로 활약하여, 공민왕 시절 두 차례나 대명사신(對明使臣)으로 선발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¹⁹⁾ 설장수가 젊은 나이에 대명사신으로 발탁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그의 언어능력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 중국에서 자랐기에 지리적으로 익숙하며 당시 동아시아 정세에 밝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었다. 설장수에게는 부친 설손의 친동생인 설사(俛斯)라는 숙부가 있었는데, 설사가 공민왕 18년(1369년) 4월과 19년(1370년) 5월 각각 명나라 황제 주원장(朱元璋)의 특명으로 고려에 사신으로 와서, 당시 반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던 공민왕을 고려 왕으로 책봉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즉, 설장수는 탁월한 외국어 실력을 갖추었음은 물론 중국 지리 및 정세에 밝고 나아가 명나라 조정에 친인척 인맥까지 있었기 때문에, 젊은 시절부터 대명 외교를 담당하는 사신으로 발탁되었던 것이다. 이후로도 설장수는 여말 선초에 모두 8차례나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오면서,²⁰⁾ 대명 외교를 전담하는 핵심 인물이 되었다.

한편, 고려의 정국은 1374년 공민왕이 시해되고 우왕(禡王)이 즉위하면서 급

18) 허홍식, 「〈附錄II〉高麗禮部試登科錄」, 『高麗科學制度史研究』, 일조각, 1981, 298~299쪽.

19) 1370년 사행기록은 『高麗史』에는 보이지 않고 『明史』 「太祖實錄」 卷36에서 확인이 된다. 1373년 사행기록은 『高麗史』 卷44 「恭愍王」 23년에 “洪武六年六月二十日, 差陪臣知密直司事金庚, 賀聖節, 判典農寺事長壽, 進賀千秋, 密直副使鄭庇, 進賀洪武七年正朝.”라는 기록이 있다.

20) 『定宗實錄』 定宗1年 10月 19日 乙卯 3번째 기사. <判三司事俛長壽卒記> “自事皇明, 朝京師者八, 屢蒙嘉賞.”

변하게 된다. 당시 새롭게 정권을 장악한 이인임(李仁任)은 끊겼던 원나라와의 외교관계를 회복시키고 북원(北元)과 사신을 주고받는 등 이른바 ‘친원 정책’으로 회귀하였다. 이에 이를 비판하던 정도전·김구용·정몽주·이숭인 등은 모두 유배되고 하륜은 지방관으로 좌천되었다. 이들과 정치적 노선을 함께 하고 있던 설장수 역시 1377년 원주목사(原州牧使)로 나아가기²¹⁾ 3~4년간을 재임하고 이후 10여 년 동안 공식적인 역사 기록에서 잠시 사라지게 된다. 그러던 중 설장수가 다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계기는 1387년 명나라가 요동까지 세력을 확장하면서 전란을 피해 이주한 요동민호(遼東民戶)에 대한 추쇄(推刷)를 요구하는 등의 고려와 명나라 사이에 새로운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면서부터다. 설장수는 이때 진정사(陳情使)로 파견되어 이러한 외교적 현안을 고려가 원하는 대로 풀어내어 그 공로를 크게 인정받았다. 곧이어 주원장의 생일을 축하하는 성절사(聖節使)로 파견된 것을 비롯하여, 1388년 위화도회군 이후 우왕의 신위와 창왕(昌王)의 습위(襲位)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신으로 가는 등 굵직한 외교 현안을 다루는 최전선에 자리하였다. 이와 더불어 1389년 이른바 ‘폐가입진(廢假立眞)’의 명분 아래 공양왕을 옹립할 때에는 이른바 ‘9공신’에 포함되는 등 국내 정치 문제에서도 핵심 인사로 군림하게 되었다.

하지만 1392년 정몽주가 피살되고 조선이 건국하게 되자, 설장수는 정몽주의 당여(黨與)로 몰리고 우현보·이색 등과 도당(徒黨)을 결성하여 반란을 모의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고 파면되어 장기(長鬢)로 유배되었다. 하지만 이성계의 특별한 배려로 목숨을 부지한 채 유배에서 풀려 서울로 돌아올 수 있었다. 유배에서 돌아온 설장수는 1394년 사역원 제조(司譯院提調)에 임명되어, 사역원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기획하였다. 이 과정에서 설장수는 자신이 직접 『소학(小學)』을 한어 즉 백화문(白話文)으로 풀이하여 『직

21) 정확한 기록이 없지만, 설장수도 지방관으로 좌천된 것이 아닌가 한다. 설장수가 원주목사로 파견된 기록은 다음과 같다. *鄭道傳, 『三峯集』, 한국문집총간 5, 민족문화추진회, 313쪽. 「交州道按廉使河公崙復命如京原州使君長壽邀予同餞不赴以詩代之 按戊午後往來榮堤時作」. ; 318쪽. 「原城同金若齋見按廉使河公崙牧使使公長壽賦之 丁巳冬」.

해소학(直解小學)』이란 책을 편찬하고 이를 사역원의 한어 학습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런 공로로 인하여 1396년 7월에는 태조의 특명으로 본래의 직책인 판삼사사(判三司事)에 복직되고,²²⁾ 11월에는 경주(慶州)를 본관으로 하사받고 연산부원군(燕山府院君)에 봉해졌다. 다시 중앙 정계의 실세로 자리잡은 셈인데, 그럴 수 있었던 원인은 역시 명과의 미묘한 외교 문제 때문이었다. 설장수는 곧바로 사은사(謝恩使)의 임무를 수행함은 물론 태조의 선위와 정종의 즉위를 고하는 계품사(計粟使)로, 홍무제 사망 때에는 진향사(進香使)로 파견되는 등 외교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발휘하였다.

설장수는 문예 방면에서도 뛰어난 역량을 드러내었다. 그는 부친 설손의 문집 『근사재일고(近思齋逸藁)』를 편찬²³⁾하고 자신이 직접 발문(跋文)을 썼으며, 글씨에도 조예가 깊어²⁴⁾ 이색의 문집 『목은집(牧隱集)』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문집을 정서(正書)하기도 하였다.²⁵⁾ 무엇보다도 설장수는 문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한시 창작에도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시문집인 『운재집(芸齋集)』을 편찬하기도 하였으나, 이 책은 현재 전하지는 않는다. 특별히 우리말에도 뛰어난 여말 선초의 역사적 국면 속에서 우리말 노래 시조를 창작하기도 하였다.

설장수는 본래 위구르 출신으로서 원나라 시절 중국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구르어, 몽골어, 한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였다. 또 동아시아의 보편언어인 한문은 물론 일찍부터 우리말에도 능숙하였다. 즉 설장수의 문예 활동에는 탁월한 언어적 감각이 밑바탕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귀화 이후에 우

22) 『太祖實錄』太祖 5年 7月 27日 壬午 1번째 기사. “以鄭道傳爲奉化伯, 俛長壽爲判三司事.”

23) 이에 대해서는 박현규, 「위그로족 귀화인 설손 문집인 <近思齋逸藁>의 발굴과 분석」, 『大東漢文學』 7, 대동한문학회, 1995, 210~217쪽; 가자경, 「歸化人 俛遜의 文學世界」,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22~27쪽; 김진근, 「『海東文獻總錄』所載 高麗文集 研究 - 不傳文集을 중심으로」, 『藏書閣』 18,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78~79면 참고.

24) 우리나라 역대 서화가의 사적과 평전을 정리하여 수록한 吳世昌의 『權域書畫徵』에 설장수의 이름이 올라 있다. *吳世昌, 『權域書畫徵』上, 『麗代編』 126. 俛長壽.

25) 成俁, 『慵齋叢話』卷10. “俛斯文長壽, 大元人也. …(중략)… 亦能詩文, 有芸齋集行于世, 手書牧隱集, 其筆法適勁有範”

리말을 익힌 것이 아니라, 이미 중국에 있을 때부터 우리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임금이 侍講官 倭循에게 묻기를, “너의 선조가 중국에 있을 때에 어디에서 살았으며, 어느 때에 벼슬하였느냐?” 하니, 설순이 대답하기를, “신의 선조는 西蕃 回骨 땅에 살았사오며, 원나라 太祖 때에 비로소 벼슬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묻기를, “너의 叔父는 나이 몇 살 때에 여기에 왔으며, 우리나라의 언어를 알았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신의 숙부 長壽는 나이 19세에, 眉壽는 나이 17세에 여기에 왔사오며, 언어도 대강 알고 있었습니다.” 하였다.²⁶⁾

위 인용문은 세종(世宗)이 설장수의 조카였던 설순(倭循)과 경연에서 문답한 내용이다. 설순은 세종의 질문에 응대하면서 설장수가 고려로 오기 전에 이미 우리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고려가 원의 부마국 지위를 지니고 있었던 관계는 물론이요 설장수의 부친 설순이 공민왕과 깊은 교유관계를 맺고 있었던 상황 때문에 이미 중국에 있을 때부터 우리말을 익힐 수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설장수가 남긴 시조 작품은 『청구영언』(진본)을 포함하여 모두 12개 문헌에 출현할 정도로 조선 후기까지도 제법 널리 불린 작품이다. 특히 『時調시조』(단국대본)에는 ‘倭長壽. 字天民, 號芸齋. 恭愍王時等第, 官至判三司事, 我朝賜籍慶州.’라는 작가 정보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듯난 말 보난 일을 샨리에 비겨 보와
 올흐면 흘지라도 그르면 말을 거시
 평성의 말슴을 같히여 너면 시비 될 줄 이시랴²⁷⁾

26) 『世宗實錄』 世宗 7年 1月 16日 丁亥 1번째 기사. 上問於侍講官倭循曰: “爾祖先在中國時, 居何處, 仕於何代.” 循對曰: “臣之祖先, 居西蕃回骨之地, 始仕於元太祖之世.” 上問: “爾叔父年幾歲時來此, 知我國言語乎.” 對曰: “臣叔父長壽年十九, 眉壽十七來此, 言語亦粗知之.”

27) 『古時調大典』 #1485.1.; 『時調시조』(단국대본) #008. *이 작품을 수록하고 있는 가집과 작품번호는 다음과 같다. 청진 #342, 해수 #328, 시박 #300, 가조 #301, 시단 #008, 가단 #065,

위 작품은 언행 처신의 조심성을 바탕으로 시비(是非)에 휘말리지 말 것을 권계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편의상 작품의 제목을 ‘신언가(慎言歌)’로 명명한다. 이러한 작품의 주제적 특성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 정치인에게 있어 ‘언행’과 ‘시비’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요소이다. 때로는 자신의 뜻과 다르더라도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달리 말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잘못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시비에 휩싸이기도 한다. 이 작품은 여말 선초의 혼란한 시대를 살아온 화자가 몸소 절감한 깊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창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격랑의 시대 속에서 경술한 언행은 자칫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동시대 이준오, 이색의 시조 작품을 떠올려보면, 자연물의 알레고리화를 통해 혼란한 정치 현실을 풍자하여 예상되는 날카로운 정치적 칼날을 누그러뜨리고 있다. 설장수 역시 정치 역정 속에서 ‘친명반원’을 외치다가 이인임 집권 당시 10여 년간의 암흑기를 맛보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 건국 후에는 정도전의 탄핵으로 목숨만 겨우 부지한 채 유배길에 오른 경험이 있다. 이러한 시대상과 정치 역정에서의 절절한 깨달음이 명철보신(明哲保身)을 위한 권계의 작품으로 구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또 다른 측면의 해석도 가능하다. 설장수는 여말 선초 대명 외교 분야에서 특출한 활약을 보였다. 외교 분야에서는 ‘외교담판’처럼 세 치 혀 말로 큰 공적을 이룰 수도 있지만, 거꾸로 문서상 글자 하나의 오탈(誤脫)이나 본의 아니게 잘못 내뱉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조선 초기 대명 외교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표전문(表箋文) 사건’²⁸⁾이 대표적 사례인데, 조선에서 명나라에 보낸 표전문의 글귀가 예의에 어긋났다고 명에서 트집을 잡아 양국간에 큰 불화가 발생하였다. 이에 사신이었던 정충(鄭攄)·노인도(盧仁度)·김약항(金若恒)이 명나라에 억류되었다가 처형되고 권근은 압

청장 #305, 청가 #361, 청육 #453, 동명 #306, 교주 #1050, 원증 #237.(이상 12개) 이 가운데 작자 표기가 되어 있는 가집은 ‘시단’ 1개이다.

28) 박원호, 「明初 文字獄과 朝鮮 表箋 問題」, 『사학연구』 25, 한국사학회, 1975, 83~101쪽.

송되었다가 풀려났는데,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잘 풀어낸 것이 바로 설장수다. 따라서 외교관으로서 외교적 수사에 능수능란한 면모를 발휘했던 경험에서 우러난 권계로 읽을 수도 있을 것이다.

4. 여진 출신 귀화 왕족 李之蘭의 <逐鹿歌>

이지란(李之蘭, 1331~1402)의 자는 식형(式馨)으로 본래 여진(女眞) 사람이 다. 여진족 시절의 성은 통(佟), 이름은 투란티무르(豆蘭帖木兒)로 보통 ‘통두란’으로 불렸다.²⁹⁾ 귀화 이전의 행적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그는 부친의 여진천호(女眞千戶) 직을 세습하여 북청(北靑) 일대를 근거지로 활동하였는데, 젊은 시절부터 동북면에서 무공을 드러내면서 세력을 형성해 나갔던 이성계와 자연스레 경쟁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지란은 이성계보다 4살이나 연상이었으며, 무예 실력이나 활솜씨 역시 이성계 못지않았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 사냥한 사슴을 가지고 다투다가 활을 쏘는 대결을 펼치며 쟁장(爭長)을 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대결은 단번에 끝나지 않았고, 그 결과에 쉽사리 승복하기에도 어려웠던 듯하다.

공[이지란]이 일찍이 太祖[이성계]를 해칠 생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어두운 때에 태조가 뒷간에 가자 공이 활을 당겨 쏘니, 태조가 앉은 채로 그 화살을 손으로 잡았다. 공이 또 계속하여 두 번을 쏘았으나, 태조가 번번이 다 잡았다. 공은 분명 태조가 그 화살에 맞았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태조가 그 화살을 공에게 돌려주니, 공이 놀라 마음으로 굴복되어 그때부터 감히 탄생각을 먹지 못하였다.”³⁰⁾

29) 참고로 『高麗史』를 비롯한 조선시대 대부분의 문헌에서는 그가 여진의 金牌千戶 阿羅不花의 아들로 되어 있어 여진족 출신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靑海李氏世譜』에는 남송의 명장 岳飛의 후손으로 그 선조가 金·元에 출사하여 여진 사회에서 생활하며 그 풍속상 母姓을 따른 것일 뿐 본래 宋人 혈통이라 서술하고 있다.

30) 洪萬宗, 『旬五志』 上. 公嘗有害上之意. 一日昏, 上如廁, 公彎弓射之, 上坐執其矢. 公又連發

위 인용문은 비록 설화적인 요소가 크지만, 무공 대결을 통해 이지란이 결국에는 심복하고 이성계 휘하로 들어오게 되는 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지란의 무공을 아낀 이성계는 의형제를 맺고 자신과 같은 이씨 성을 나누어 주었다. 이를 계기로 이지란은 공민왕 20년(1371년) 자신의 부족들을 이끌고 완전히 고려로 내투(來投)하게 되었다.³¹⁾

귀화 후 이지란은 이성계와 함께 전장을 누비며 여러 차례 큰 공을 세우게 된다. 대표적으로 1380년 황산대첩에서 이성계와 함께 온몸을 갑옷으로 두른 왜구의 장수 아지발도(阿只拔都)의 활로 쏘아 죽여 큰 승리를 견인하였으며,³²⁾ 이어 1382년에는 동북면을 침입한 호발도(胡拔都)를 격퇴하고, 1388년에는 위화도회군에 가담하여 회군 1등 공신에 올랐다. 1392년에는 명나라를 도와 건주위(建州衛) 여진 추장 월로티무르(月魯帖木兒)의 반란을 정벌한 공으로 명나라에 의해 청해백(青海伯)에 봉해졌다. 특히 조선 건국 이후에 개국 1등 공신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이성계와 의형제 관계였던 터라 조선 왕실의 선원보(璿源譜)에 이름을 올리며 왕족의 반열에 들어섰다. 우리나라 역사상 귀화인들은 많았지만, 기실 이처럼 현달한 인물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지란은 개국 공신들 가운데 가장 많은 토지를 하사받았으며, 더욱이 이성계의 계비 신덕왕후 강씨의 조카딸을 아내로 맞아들여 혼맥으로까지 단단히 묶이게 되어, 그 위상은 한층 높아졌다.

하지만 1차 왕자의 난으로 세자 방석(芳碩)과 그를 뒷받침하던 정도전 일파가 숙청되고 정종(定宗)이 왕위에 올랐으며, 2차 왕자의 난으로 방간(芳幹)은 유배에 처해지고 이방원이 실권을 부여잡고 왕위에 오르게 되자, 이성계는 정치의 무상감을 느껴 모든 권력을 양위하고 함흥으로 떠나버렸다. 이른바 ‘함흥차사(咸興差使)’ 사건이 시작되는 계기였다. 왕자의 난 당시에 이지란은 그 어

二矢，上輒皆執之，公意謂必中，上以其矢還之，公驚服，自此不敢復有異心。

31) 서병국, 「李之蘭 研究」, 『백산학보』 10, 백산학회, 1971, 123~126쪽.

32) 『高麗史節要』 卷31 「辛禡(二) 庚申」, 太祖曰, 我射兜牟頂子, 兜牟落, 汝便射之, 遂躍馬射之, 正中頂子, 兜牟纒絕而側, 其人急整之, 太祖卽射之, 又中頂子, 兜牟遂落, 豆闌便射殺之, 於是賊坐氣.

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고 중립을 지켰지만, 이성계의 의형제라는 상징적 지위 때문에 지지의 명분이 필요한 이들에 의해 뜻하지 않게 공신 명부에 이름이 오르게 된다. 하지만 이성계가 함흥으로 떠나자 이지란 역시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이내 북청으로 떠났다. 말년에는 남정(南征)·북벌(北伐)에서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을 속죄하고자 만년에 불문(佛門)에 들어가 승려가 되었다고 전한다.

이지란은 본래 무장이었기 때문에 직접 남긴 문학적 성과는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그가 남긴 시조 1수가 조선 후기 여러 가집에 전한다.

①

楚山에 우는 虎와 沛澤에 잠긴 龍이
吐雲 生風 ㅎ여 氣勢도 壯 ㅎ시고
秦나라 외로운 스슴은 갈 곳 몰나 ㅎ노라³³⁾

②

楚山에 우는 범과 沛澤에 잠긴 龍이
乾坤을 돛토와 窓을 계워 썩노는디
秦나라 외로운 스슴은 갈 길 몰나 ㅎ노라³⁴⁾

위 인용한 작품 중 ①은 모두 35개의 문헌에 출현하고, ②는 3개의 문헌에 출현하는데, ①의 유형에서 22개 문헌에 ‘이지란’으로 작가 표기가 되어 있다. 두 작품은 중장이 서로 상이한 변이형 관계로 작품 해석에 상호 참조가 될 수

33) 『古時調大典』 4898.1. / 『병와가곡집』 #513. *이 작품을 수록하고 있는 가집과 작품번호는 다음과 같다. 병가 #513, 청흥 #030, 동가 #024, 영류 #050, 악서 #273, 시집 #471, 동국 #228, 동국 #264, 청육 #043, 악나 #375, 가연 #106, 원국 #385, 원동 #378, 원육 #371, 원불 #373, 원연 #374, 원하 #378, 원황 #370, 해악 #375, 화악 #394, 협률 #370, 원규 #385, 원일 #374, 원서 #378, 원김 #378, 원박 #373, 시여 #158, 시하 #014, 가선 #366, 울보 #057, 시미 #082, 악고 #510, 교주 #984, 원증 #947, 시평 #077.(이상 35개) 이 가운데 ‘병가’, ‘청흥’, ‘동가’ 등 모두 22개의 문헌에 작가 표기가 있다.

34) 『古時調大典』 4898.2. / 『해이수』 #263. *이 작품을 수록하고 있는 가집과 작품번호는 다음과 같다. 해수 #263, 청장 #429, 소우 #082.(이상 3개) 이 가집에서는 모두 작가 표기가 없다.

있다.

이 작품은 그동안 학계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여말 선조 여러 인물들의 시조가 다양하게 언급되는 국면 속에서도 이지란의 시조는 늘 제외되었다. 작품 창작 시기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작품에는 전고(典故)가 활용되어 있어서 작품 해석도 쉽지 않다. 그래서인지 연구자들마다 모두 작품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다. 예컨대 정종대·신용순³⁵⁾은 고려 말에 새 왕조를 세우려는 이성계 일파와 고려 왕조를 부지하려는 정몽주 일파의 세력 다툼 속에서 왕권이 이씨에게 넘어가기를 바라는 뜻을 깔고 있는 작품으로 설명한다. 임주탁³⁶⁾은 원·명교체기의 동아시아 국제 정세 속에서 고려 귀부(歸附)의 명분을 마련하고, 여진 출신이었던 자신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어 보려는 의도에서 창작한 것이라 추론하였다. 박명희³⁷⁾는 역사적 사실을 드러내면서 무장으로서 호방함을 표출한 작품이라 주장하였다.

참고로 이지란의 시조를 수록하고 있는 가집 가운데 『동가선(東歌選)』에는 작품 말미에 작품의 내용적 특징을 나타내는 1~3글자의 핵심어를 적고 있는데,³⁸⁾ 이지란의 시조 작품 아래는 ‘술(述)’이라는 주제어가 붙어 있다. 『동가선』에서 ‘술’은 역사적인 사건이나 세태를 우의적으로 표현한 작품에 덧붙여진 경우가 많다.³⁹⁾ 따라서 이러한 주제어 표지가 이지란 시조의 해석에도 참고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작품의 합리적인 해석의 관건은 작품에 사용된 역사적 사실 및 전고를 작가가 살았던 시대 상황 및 현실 인식과 잘 포개지도록 설명해 내는 것이라 할 수

35) 정종대, 『풀어쓴 옛시조와 시인』, 새문사, 2007, 27쪽. ; 신용순, 『시조는 역사를 말한다』, 푸른사상, 2012, 52쪽.

36) 임주탁, 「이지란(李之蘭) 시조의 맥락과 함의」, 『문학교육학』 52, 한국문학교육학회, 2016, 236~245쪽.

37) 박명희, 「조선 초기 功臣 시조에 나타난 작가 의식과 그 지향」, 『동아인문학』 52, 동아인문학회, 2020, 12~16쪽.

38) 김홍규 외, 『고시조 문헌 해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57~59쪽.

39) 허영진, 「『동가선』의 주제어 분포와 주제 인식」, 『한국언어문화』 23, 한국언어문화학회, 2003, 172~174쪽.

있다. 초장의 초산에서 포효하는 호랑이와 패택에 잠긴 용은 주지하듯이 초한 고사(楚漢故事) 속의 항우(項羽)와 유방(劉邦)으로 대표되는 군벌 세력이다. 중장에서는 이 두 존재가 천하를 두고 각축을 벌이며 거세게 쟁투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①에서는 양측의 강렬한 기세가 팽팽히 맞서 있음을, ②에서는 분기(忿氣)를 띠고 다투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우선 두 영웅적 존재가 호적수로 만나 대립하는 작품 속의 형상으로 볼 때, 이를 ‘무장 vs 문신’, ‘혁명파 vs 온건파’의 대립 구도인 이성계 일파와 정몽주 일파로 치환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작품 해석의 열쇠는 역시 종장이다. 종장의 핵심어는 ‘진나라 사슴’이다. 임주탁은 이를 작자 자신 즉 ‘이지란’으로 보아 원-명의 다툼 속에서 고려로 귀부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하였다. 한편 박명희는 이를 진나라 마지막 황제 ‘자영(子嬰)’으로 보아 장엄한 기세를 뽐어내는 항우-유방 속에서 두려움에 떠는 자영의 모습을 통해 무장의 호방함을 표출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종장에서 활용된 고사는 ‘축록(逐鹿)’ 고사로 『사기(史記)』 『회음후열전(淮陰侯列傳)』에서 연유하는데 ‘제왕의 자리를 얻기 위한 다툼’을 의미한다. 아울러 ‘秦나라 외로운 스슴은 갈 곳 몰나 흐노라’ 하는 종장의 시적 표현에는 무정향성(無定向性)을 바탕으로 시적 화자의 근심, 걱정, 염려를 짙게 깔고 있다. 결국 이 작품은 천하 패권을 두고 다투는 용호상박(龍虎相搏)의 상황 속에서 과연 왕권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걱정 섞인 의문을 표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대적 상황과 이지란의 생애를 통해서 이러한 고민이 드러날 만한 지점은 언제였던가? 바로 1·2차 왕자의 난이 발생한 시점이다. 왕자의 난 과정에서 이지란은 그 어느 쪽에서 참여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 서 있었다. 그런데 난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자신이 모시던 형님은 상왕(上王)으로 밀려나고 꼭두각시 처지의 정종이 왕으로 즉위했다. 2차 왕자의 난에서는 넷째 아들 방간과 다섯째 아들 방원이 군사력을 동원하여 맞붙었다. 신하들도 양쪽에 각각 줄을 댔다.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였지만 권력 쟁탈전이 연이어 벌어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성계는 아들들의 권력욕 및 혈육간의 살육에 혐오를

느끼고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함흥으로 떠나갔고, 이지란도 이성계의 전철을 밟아 북청으로 떠났다. 진나라가 시황제의 공적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웠지만 꼭두각시 같은 2세황제 호해(胡亥)가 지위를 물려받아 진나라의 국운이 얼마 가지 않아 기울어졌듯이, 이성계가 새로운 나라를 세웠지만 실권이 없는 정종이 등 떠밀려 왕이 되고, 이제 다시 왕위를 두고 양측이 총력전을 벌이는 상황 속에서 이지란은 왕위가 장차 누구에게 돌아가고 이를 통해 조선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하는 염려 섞인 걱정을 시조 작품으로 예들려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주제적 경향을 보이는 이지란의 시조 작품을 ‘축록가(逐鹿歌)’로 명명하고자 한다.

5. 맺음말

본고는 지금까지 여말 선초 귀화인들의 시조 창작 양상을 살펴보았다. 앞의 논의를 정리하고, 여말 선초 문학장(文學場) 안에서 이들의 시조 창작 행위가 지니는 의미를 부연하는 것으로 결론을 삼고자 한다.

두루 알려져 있듯이 여말 선초는 시조의 형성기로서 역사 전환기의 주체였던 신흥사대부들이 그 담당층이었다. 이 같은 국면에서 귀화인들은 이방인으로 부유(浮游)하지 않고 그들 역시 우리 역사의 주체로서 당당하게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갔다. 최영, 이색, 이준오, 원천석, 정몽주, 길재, 이방원, 정도전 등 여말 선초 문신·무신들이 저마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장 및 지향을 시조를 통해 드러내었듯이, 귀화인들 역시 시조를 창작하였다. 우리말에 서툰 수밖에 없던 귀화인들이 우리 고유의 노래 형식인 시조를 창작하였다는 것은 우선 그 자체로 특기할 만한 지점이다. 귀화인들의 시조 창작은 비록 외모는 외국인일 지언정 그들의 행적과 삶을 온전히 우리나라에 순화·동화시키고자 하는 전략적 의도를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국내에서 자신들의 입지도 강화되었

을 것이라 생각된다. 더욱이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의 인물들이 한시와 더불어 시조를 창작하였다는 점은 여말 선조 사대부들의 문학장 안에서 시조가 어떠한 방식으로 창작되고 소통되었는가 하는 점을 추정케 한다. 적어도 이 시기 문인들에게는 한시 못지않게 시조 창작 행위 역시 중요한 문학적 행위의 일환으로 인식되었던 듯하다. 적어도 후대에 시조를 ‘시여(詩餘)’로 지칭하며 한시의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거나, 또는 퇴계(退溪)가 언급한 것처럼 ‘가창에의 필요’에만 견인되어 우리말로 가사를 엮어 시조를 창작하던 것과는 분명 다른 층위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여말 선조에 시조를 창작하는 행위는 누구나 거부감없이 참여할 수 있는 또 작가로서 일종의 긍지를 가지고 작품을 짓고 노래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여말 선조 시조 담당층들은 시조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고 처세관이나 세계 인식을 표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는 유례없이 혼란했던 역사 전환기 국면 속에서 우리말 노래를 통해 대중들을 향한 일종의 ‘어른진’ 성격도 띠고 있었던 것이라 생각한다. 귀화인들의 시조 창작 참여는 이 같은 문학장에서 가능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시기 시조 창작은 왕공석사 등 문·무관을 가리지 않았으며 여기에 더하여 귀화인들까지 참여하였던바, 신분적 지위의 상중하 남녀노소가 모두 참여한 시조 창작의 개방성은 이미 형성기부터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본래 중국 출신으로 심양에서 태어나 공민왕을 호종하며 귀화하여 여러 차례 전공으로 이성계에 맞설 만한 유일한 무장이었던 변안열은 역성혁명의 기로에서 끝까지 고려왕실에 대한 충심을 드러내었다. 이에 이방원의 <하여가>, 정몽주의 <단심가>와 연관된 맥락에서 <불굴가>를 지어 자신의 굳건한 충절을 드러내었다. 위구르 출신으로 전란을 피해 부친을 따라 귀화한 설장수는 대명외교를 전담하는 사신으로 활약하며 정치적 부침 속에서 깨달음을 바탕으로 <신인가>를 지어 언행 처신에 각별히 조심할 것을 경계하였다. 여진 출신으로 이성계와 의형제를 맺고 조선 건국 이후에는 왕족의 반열에까지 오른 이지란은 조선 건국 후 왕자의 난이 지속되는 국면에서 왕위가 장차 누구에게 돌아가

고 이를 통해 조선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하는 염려 섞인 걱정을 <축록가>를 통해 드러내었다. 귀화인들이 여말 선초 역사 변환기에서 의미 있는 정치적 행보를 보여 주며 우리 역사의 한 장면을 연출하였듯이, 이들이 남긴 시조 역시 여말 선초 시조사를 보다 풍성하게 하였던 만큼 한국문학의 범주 안으로 적극 끌어들이 함께 논의해야 하리라 본다.

참고문헌

- 『大隱先生實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慶州僕氏諸賢實記』,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
『青海李氏世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黃州邊氏世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高麗史』, 『高麗史節要』.
『太祖實錄』, 『定宗實錄』, 『世宗實錄』,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
沈光世 『海東樂府』, 洪萬宗 『旬五志』, 吳世昌, 『權域書畫徵』.
김홍규·이형대·이상원·김용찬·권순희·신경숙·박규홍, 『고시조대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신경숙·이상원·권순희·김용찬·박규홍·이형대, 『고시조 문헌 해제』, 고려대학교 민
족문화연구원, 2012.
- 가자경, 「歸化人 僕遜의 文學世界」,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22~27쪽.
강전섭, 「傳邊安烈의 <不屈歌> 贋作論」, 『어문연구』 12, 忠南大學校 文理科大學
語文研究會, 1983, 123~136쪽.
김건곤, 「『海東文獻總錄』 所載 高麗文集 研究 -不傳文集을 중심으로」, 『藏書閣』
18,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78~79쪽.
(UCI : G704-001808.2007..18.004)
- 박명희, 「조선 초기 功臣 시조에 나타난 작가 의식과 그 지향」, 『동아인문학』
52, 동아인문학회, 2020, 12~16쪽.
- 박옥걸, 「고려시대 귀화인의 역할과 영향」, 『백산학보』 70, 백산학회, 2004.
- 박원호, 「明初 文字獄과 朝鮮 表箋 問題」, 『사학연구』 25, 한국사학회, 1975, 83
~101쪽.
- 박현규, 「위그로족 귀화인 설손 문집인 <近思齋逸藁>의 발굴과 분석」, 『大東漢
文學』 7, 대동한문학회, 1995, 210~217쪽.
- 배숙희, 「13~14세기 歸化人의 유형과 고려로 이주」, 『역사학보』 233, 역사학회,
2017.
(UCI : G704-000356.2017..233.002)

- 서병국, 「李之蘭 研究」, 『백산학보』 10, 백산학회, 1971, 123~126쪽.
- 신용순, 『시조는 역사를 말한다』, 푸른사상, 2012, 52쪽.
- 이동영, 「不屈歌 賈作論의 辨正」, 『韓國文學論叢』 8·9, 한국문학회, 1986, 5~28쪽.
- 이미지, 「고려 전기 異國人 入境의 유형과 실상—來獻·來朝·來投·來附를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43, 한국중세사학회, 2015.
(UCI : G704-001262.2015.43.010)
- 이성무, 「변안열의 생애와 평가」, 『대은 변안열의 생애와 업적』, 지식산업사, 2013, 18~27쪽.
- 이성무, 『변안열 평전』, 글항아리, 2015, 77~84쪽.
- 이춘양·조지형, 「고대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 사례 및 유형 -『삼국사기』·『삼국유사』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5,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9, 743~756쪽.
- 임주탁, 「이지란(李之蘭) 시조의 맥락과 함의」, 『문학교육학』 52, 한국문학교육학회, 2016, 236~245쪽.
(UCI : G704-000342.2016.52.006)
- 정운채, 「〈丹心歌〉의 전승 계통에 따른 해석의 방향」, 백영 정병욱 선생 10주기 추모 논문집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 집문당, 1995, 447~458쪽.
- 정중대, 『풀어쓴 옛시조와 시인』, 새문사, 2007, 27쪽.
- 조규익, 「〈不屈歌〉 補論」, 『東方學』 2,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1996, 83~106쪽.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제4판), 지식산업사, 2005, 239~242쪽.
- 한정수, 「고려 전기 異邦人·歸化人의 입국과 해동친화」, 『한국중세사연구』 50, 한국중세사학회, 2017.
- 허영진, 「『동가선』의 주제어 분포와 주제 인식」, 『한국언어문화』 23, 한국언어문화학회, 2003, 172~174쪽.
(UCI : G704-001057.2003.23..011)
- 허흥식, 「〈附錄Ⅱ〉 高麗禮部試登科錄」, 『高麗科擧制度史研究』, 일조각, 1981, 298~299쪽.
- 황쾌강, 「大隱 邊安烈과 不屈歌」, 『論文集』 2, 단국대학교, 1968, 53~87쪽.
- 황쾌강, 「大隱의 不屈歌 補攷 : 補攷 國文原歌를 中心으로」, 『국어국문학』 49·50, 국어국문학회, 1970, 355~368쪽.

| Abstract |

The aspects of the creation of Sijo by naturalized poets from the late Goryeo Dynasty to the early Joseon Dynasty and its meaning

Cho, Ji-hyoung
Chonnam Univ. Prof.

This paper examined the creation of Sijo by naturalized poets from the late Goryeo Dynasty to the early Joseon Dynasty. From the late Goryeo to the early Joseon Dynasty, it was the formation of Sijo, where Shinheung-Sadaebu was the main creative class of Sijo. In this phase, naturalized poets also created Sijo, revealing their political position and world awareness. The fact that naturalized poets, who had no choice but to speak poor Korean, created Sijo, a unique Korean song format, is very special in itself.

General Byeon An-yeol from Shenyang, wrote the lyrics of <Bulgulga 不屈歌> during the process of replacing the dynasty, expressing his strong loyalty to the Goryeo Dynasty. Seol Jang-su, a native of Uighur who was in charge of diplomacy to Ming China, wrote the lyrics of <Shineonga 慎言歌> and warned against caution in his speech and conduct. Lee Ji-ran, who was born in Jurchen and rose to the rank of the Joseon royal family, wrote the lyrics of <Chukrokga 逐鹿歌>, expressing concern about the fate of Joseon.

The fact that naturalized poets and high-ranking politicians

created Sijo with Chinese poetry from the late Goryeo to the early Joseon indicates that Sijo was recognized as an important literary act in the literary field at that time. At the same time, it can be said that Sijo's creation has a personality that deserves pride as a writer. In addition, the openness of the creation of the sijo was already in place from the formation period.

Key words : Sijo, naturalized person, naturalized person literature, Byeon An-yeol, Seol Jang-su, Lee Ji-ran

